기도응답과 동행의 혼동

(눅11:13-26)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4.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15.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17.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1.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3.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24.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응답과 동행의 혼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실제로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강청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강청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주어지는데 성령을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읽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통념이 다 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응답과 연관 지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떠올리는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오만 번 응답받은 뮐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지 뮐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의 기도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은 책이죠.
고아 2천 명을 날마다 하루 세끼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고정된 정부의 지원이나 갑부들의 지원 없이 평생을 고아들을 먹입니다.
15만 명의 고아, 고아원의 수용인원이 2천 명인데, 평생 그 일을 하셨으니까 15만 명의 고아를 먹이십니다.
그 모든 일이 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감동 그 자체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기도해야겠다는 동기부여와 자극을 받게 되는 영원한 신앙세계에 있어서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제기해봅니다.
고아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당장 끼니가 급한 상황에서 조지 뮐러가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대신에, 만약에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물었다면…

‘주님! 지금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라고 물었다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자,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돈 문제가 있음을 주님께 고하고 그것을 해결 받는 것, 건강 문제를 고하고 해결 받는 것, 이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돈 문제를 해결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 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라고 물었다면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을 겁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나오고, 직장문제 때문에, 자녀문제 때문에 나와서 기도할 때, 곧바로 내가 내 기준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말고,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봤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주기도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해서, 하루 세끼 먹는 것 말고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이며, 왜 그래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돈 문제에 대해서 하루 세끼 먹는 것에 사용되는 돈 말고는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뜻에 내놓아야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말고 다른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더구나 주님의 복음시기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그 '때'라는 것은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이 문제일 때도, 자녀가 문제일 때도, 부부가 문제일 때도, 직장이 없을 때도, 나라가 문제일 때도, 기도를 할 때라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깁니다.
다른 기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성령을 주신다'는 단 하나의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오만 번의 응답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응답이, 유일한 응답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응답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응답으로 오시면, 성령님은 사물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응답으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격체이시니까 활동을 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내게 응답으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대해 역사하시고 내 몸에 대해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대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청기도를 주기도로 드릴 때, 십자가를 붙잡고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 이름을 부르는 내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도 얽매여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얽매여있는 게 바로 영적인 음란이고,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른 관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걸 사랑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 마음이 이 세상 지구페인이 된 상태, 지구에 있는 일들과 사람과 사건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현실이 되어 있는 상태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일을 조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강청할 수 있을 뿐이지,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현실로부터.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빠져나옴과 동시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이 지구 위의 그 어떤 현실보다도 앞선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돈이 많은 현실을 만날 때 기뻤고, 우리 아들딸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현실을 만날 때 기뻤던 것처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만날 때,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이 살아있는 몸 쪽으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기도의 내용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몸을 장갑처럼 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가 장갑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한 가운데, 한 부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을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느냐?'
주님은 주님 자신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띠시고 살아가실 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본문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은 성령님을 통하여 뻗어 오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끼시는 장갑이

라 이겁니다.
손가락을 끼는 게 장갑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에는 도저히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를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제1현실이 되게 해주시므로, 감옥에 갇혀있을 때라도 감옥이라는 이 땅의 현실보다도 더 먼저 천국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돈이 없을 때라도 몸이 아플 때라도 자식이 문제일 때라도, 그 이 땅의 현실보다도 더 먼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시고, 천국을 느끼게 해주셔서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의 돈 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직장문제, 나라문제 등 모든 문제에 휩싸여 있는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령을 통하여 손처럼 뻗으심으로 내 몸을 장갑처럼 끼셔서 이 지구 위에서 행동을 해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은 성령님을 받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장갑처럼 내 몸을 끼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 하나뿐이고, 기도는 주기도문뿐이다, 어떤 상황과 문제에 처해 있어도 주기도문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 이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도 성령님 때문에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전체를 고려하시면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러므로 5만 번 응답 받은 뮐러의 기도는 5만 번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5만 가지로 뮐러의 몸을 장갑처럼 끼신 하나님께서 5만 가지의 역사를 하신 것이지, 5만 번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 5만 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5만 가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낸 거지요.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돈 문제, 건강문제가 있을 때, 자식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응답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응답 받고 싶다.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답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문제의식과 내가 생각하는 해답대로 현실이 바뀌어 지느냐라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는 없어요.
또한 그런 기도는 불교에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5만 번 응답 받은 뮐러의 기도를 볼 때, 뮐러가 14세 때부터 아버지의 지갑을 뒤져서 돈을 훔쳐내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을 하고 고아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 와중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뮐러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손이 낄 수 있는 장갑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리고 고아 2천 명이 먹을 게 없어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때의 기도는 지금 이 강청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장갑처럼 끼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동행이지 강청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대화다, 근데 강청하는 기도와 대화하는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대화하는 기도, 의논하는 기도는 동행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군중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의논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조지 뮐러가 5만 번 의논한 것이지 5만 번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5만 번 응답 받았다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내가 생각하는 답대로 기도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자꾸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조지 뮐러가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논을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동행을 하는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동행할 때 대화하는 것, 대화도 기도라면 이것은 동행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강청의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어떡하든지 내가 지구페인의 상태에서 마음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기도, 그리고 내 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펼쳐지는 하나님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두 가지 기도만이 기도일 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지상의 어떤 문제에 닥쳤을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먼저 그 문제를 내 느낌과 내 기준을 가지고 문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의 기도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떻게 내 마음이 지구의 현실로부터 빠져나갑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 강림 때처럼 강력하게 이례적으로 급진적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서서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형태와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강청하는 그때 반드시 주어야 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선물의 약속,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주기도로 강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 문제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문제가 있는 현실보다도 천국과 아버지를 더 앞선 현실로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의 손이 끼시는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강청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깁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 주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응답이고, 그것이 유일한 응답인 이유는 주기도문만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간구의 기도들은 실상은 간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의논과 대화와 동행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응답 받으시고, 오만 가지의 의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갑 삼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뮐러와 같은 축복 된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기도는 주기도뿐입니다.
응답은 성령님이 주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동행의 대화요, 의논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